

# 4차 산업혁명 펀드 제주기업은 홀대?

### 제2호 조성액 160억 중 도외 104억·도내 41억 투자 영업손실 기업 수두룩... “이익 도민에 공유” 공염불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조성한 4차 산업혁명 펀드가 도외 기업들에게 집중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펀드를 조성한 것은 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투자 중심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가 제2호 전략펀드 조성 당시 투자 환수 및 이익 배당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투자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투

자 기업들의 영업 손실로 당분간 투자이익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펀드 제1호 전략펀드 조성액은 150억원으로 이중 95억원은 도외기업(19개사), 42억원은 도내기업(6개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6개 도내기업 가운데 제주에서 창업한 토종기업은 4개이다. 지원 규모도 각 사당 2억~5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지역에서 창업해

본사 주소지만 제주로 이전한 기업에는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 이익 환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2호 전략펀드 160억원 가운데 104억원은 도외기업(15개사)에, 41억원은 도내기업(4개사)에 투자됐다. 전략펀드 제2호는 제주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은행 등 지역재원 20억원, 국비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 90억원 및 기타 민간투자재원 50억원으로 결성됐다.

제2호 전략펀드 중 도내 기업에 투자된 41억원 가운데 20억원만 특정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 가운데 2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억~2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의원은 “도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주소지만 제주에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1호 전략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자한 5억원의 배 이상을 제주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다”면서 “조만간 제주에서 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목기자 bigroad@ihalla.com

# 더큰내일센터 마지막 단추는 ‘내실화’

### 수료자 80% 취·창업 성공에도 교육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

제주 더큰내일센터(이하 센터)가 교육 수료자의 80% 이상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을 받고도 교육 도중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신중한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9월 제주시 오라동 연복로 인근에 센터를 설립, 개원했다. 센터 프로그램은 최대 2년 간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최초 6개월)에선 기본의무교육과 취·창업, 창작 등 교육을 이수하며 2단계에선 참여자의 희망 진로에 따라 일반취업, 특화형 취업, 창업(창직)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단계에선 도내의 기업에서 주5일제 인턴십 등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훈련 및 프로젝트 수당이 지급된다. 센터는 2019년부터 올해 9월 초까지 4기에 걸쳐 도내·외 청년 미취업자 325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317명이 등록했다. 기수 별로 보면 1기 100명 선발(등록 100명) 2기 70명 선발(65명) 3기 80명 선발(77명) 4기 75명 선발(75명) 등이다.

특히 1·2기 교육 수료자(1단계)들의 취·창업률을 보면 1기 87명 중 71명(81.6%)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51명 창업 20명 등

이다. 2기에선 교육 수료자 59명 중 46명(77.9%)이 취·창업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34명, 창업 12명 등이다.

또 현재 퇴소 및 참여 인원을 보면 1기 65명 퇴소·35명 참여 2기 21명 퇴소·44명 참여 3기 30명 퇴소·47명 참여 4기 30명 퇴소·47명 참여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프로그램 중도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1기 중도 포기자 A씨는 “취업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등 보다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월 150만원 수당이 매력적이었다 보니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5기 75명을 선발했으며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5기 모집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IT 전문분야를 육성하는 디지털 분야를 신설했다. 선발 인원 중 일반분야는 61명이며 디지털분야에 14명이 선발됐다.

제주도는 창업·창직 분야에서 실제 사업자 등록 후 일정 수준 매출을 발생하는 등 안정 단계에 진입해 본격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기 참여자들이 올해 9월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예정이기 때문에 성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7일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준석 “원 지사 사퇴 도정공백 죄송”

### 2공항 도민 원하는 방향 추진 이번 경선부터 제주 독립 진행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사퇴에 따른 도정공백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제주 제2공항은 대선과정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 참석해 제주4·3 배보상, 부친의 ‘농지법 위반’ 소지 문제, 제주도당 경선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원 지사의 사퇴와 관련 “원 지사가 도정을 운영하며 도민에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지사직을 사퇴하고 더 큰 대권도전에 나서며 도

정공백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지역간 이견이 있어 대선과정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의 전반적 일자리 침체에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예산 1810억원 편성에 대해선 “진상 조사와 관련해 다소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을 처음 추천한 것에 도민들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행히 도민들의 지적으로 조기에 정정할 수 있었다”며 “진상조사의 첫 단계로 역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족한 예산 보충 및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주 ‘홀대론’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전당대회 등에서 권역별로 호남과 제주를 묶어 생각하다 보니 제주 문제가 덜 다뤄진 부분이 있다”며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 경선부터 제주만 따로 떼어내 후보들의 공약도 따로 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틀을 잡겠다”고 답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부친이 2004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제가 만 18세 때의 일로 어떤 취득 경위나 목적인지 잘 모른다”며 “아버지는 친구분의 추천으로 매입했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당 개편 문제를 당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며 “탈락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건입동 행복주택 144세대 모집 신혼부부·청년·주거급여자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시 건입동에 건설중인 ‘마음에 온 건입’ (행복주택) 144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신혼부부 대상 58호(전용면적 36.79㎡), 청년 대상 46호(전용면적 17.55㎡), 주거급여 대상 25호(전용면적 30.03㎡), 고령자 대상 15호(전용면적 30.03㎡) 등 총 144호로, 내년 4월 입주할 예정이다.

입대료는 공급 면적별로 월 14만 420원에서 24만5830원 정도이며 보증금은 공급대상별로 28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마음에 온 건입의 입주자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현장접수 방식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등기(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대행업체(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4번길 29, 701동 303호 건입동 행복주택 담당자 앞)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등기우편 접수를 받게 된다. 9월 30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한다.

다만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와 입주자모집 대행기관(031-267-4843-4)으로 하면 된다. 고대목기자

# 송재호 “공공기관 이전 원칙 세워 추진해야”

### 국회 예결위서 제주 정책질의 심 지역 감염병 체계 주문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사진)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공의료격차, 제주 제2공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김 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153개 이전, 혁신도시 10개가 만들어졌다. 남은 기관은 400여 개인데, 이전 공공기관 처리에선 역을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라며 이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통령령 보고드리고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정 청장에게는 “감염병 전문병원만은 특수한 지역,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섬 지역에 맞는 감염병 체계를 만들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외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노 장관에게 “국토부가 1998년부터 제주에 신공항을 구상하고, 2016년 에 타조사 결과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공항개발사업이 시작됐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도민 전체 대상으로는 반대가 많고, 생산 주민 대상으로는 찬성이 많다. 제주도민의 뜻을 사려깊게 고민해달라”고 지적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추석선물 단연 으뜸! 1위! 파격적 봉사!**

**구중구포 흑삼스틱(32개) 1세트+1세트 더**

2세트 현재 인터넷 가격  
**포천흑삼스틱 220,000원 → 50,000원**

9번 찌고 말리면 사포닌영리, 면역력 최고! 어린이가 할아버지 쿨!

**적이다른 발효침향 60환**

체력증진, 혈행개선, 손발저림  
**60환 1세트 현 480,000원 → 오늘주문 58,000원**

세종임금 말하기를 돈을 많이 주고라도 꼭 구입토록 하라!

1995 가전 의료기 전문기업  
**HASSEL 주식회사 하셀** 제주도 지사장 이현규

전문 상담 대표 1577-9672, 010-3699-5888    농협 : 352-1624-4713-33    예금주 이현규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은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용.
-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 4m 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 7m 줄대 세트** (대형연)
- 질긴 천, 강한 부동 비스듬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